

박현웅 Park Hyunwoong (b.1969)

@park.hyunwoong

학 력 1999 홍익대학교 대학원 공예디자인과 졸업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금속조형 디자인과 졸업

개 인 전 2024 With 워드(스페이스 업)
정원 속으로 떠나는 그림 여행
Journey Through the Garden: An Artistic Exploration(오랑쥬리)
2023 BB의 여름 (아트코드 갤러리)
2022 우리의 여행은 가을 호수를 걷는 듯 (서울아산병원 갤러리)
잠시 구름처럼 쉬어감 (선화랑 Sun Gallery)
그 외 총 43회 개인전

초대 / 단체전 2024 오투기아트워크 (롤리폴리꼬또 rolypoly cotto- 논현)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부산 Bexco)
Four Paradise(608 갤러리)
2023 Winter Masterpieces(선화랑)
KIAF(COEX Hall)
2022 정감적 접근(마음의 세계) 선화랑 45주년기념전(선화랑)
아트 부산(부산 벅스코)
2021 아트서울(COEX Hall)
2019 100 Movies 100 Artists (Avenuel Art Hall)
친구들과 함께 With my friends (63Art Museum)
2018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 2인전 (슈페리어 갤러리)
Harbour Art Fair Hongkong (Marco Polo Hongkong Hotel)
100 Albums 100 Artists (Avenuel Art Hall)

작 품 협 업 국립중앙박물관, 세이브 더 칠드런, Fendi, MCM, KT, KB국민카드, 현대백화점,
디자인하우스, 도미노피자, 오투기, 교보, ING
그 외 다수

작 품 소 장 청와대, 인천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삼성 에버랜드, 블랙스톤 웰컴센터,
삼성인력개발원(영덕연수원), MCM 본사, 상암YTN , Save the children Korea 본사, CJ
헬로비전, 강원대학교 어린이 병원,
그 외 다수

[Artist's Note]

BB와 함께....

나는 기나긴 계절이 바뀌면 문득 BB와 여행했던 여러 곳을 떠올린다.

여름은 봄을 지나 느닷없이 찾아오는데 BB는 그런 여름을 닮았다. 그는 뜻밖의 반가운 방문과 함께 여름이 끝나기 전 어디론가 떠나곤 하였다. 그리고 어느새 산이 붉게 물들어가고 그것이 하얗게 되는 계절이 올 때쯤 그는 소식을 전해오곤 하였다. 그런 BB를 내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BB가 가진 자유로움 때문이다.

그를 만나 세상을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유명한 장소의 건축물과 음식들은 그저 세상의 여러 곳을 구분하는 주소와 같은 것일 뿐 이었다. 그와 함께 달렸던 길들은 여러 가지 색의 스트라이프 로드였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 가면서 반드시 해야 할 선택을 암시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BB는 스트라이프 로드의 갈림길에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거침없이 달리곤 하였다. 때론 거칠고 험한 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법이 없었다. BB는 '그 길은 단지 다른 색의 길 일뿐이야' 라고 말했다. 세상에는 나쁜 색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의 여행 방법을 그와의 여행길에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점 그의 자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BB는 새로운 여름의 자유를 찾아 어느 들판을 달리고 있겠지...